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of Library for Community Residents Life-Long Learning

김 영 준(Young-Joo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4 한국 |
| 2. 이론적 배경 | 4.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
| 2.1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주민 | 4.1 공공도서관의 역할 |
| 2.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 4.2 학교도서관의 역할 |
| 3. 평생학습사회와 도서관의 관계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 | 4.3 대학도서관의 역할 |
| 3.1 영국 | 5. 결론 및 제언 |
| 3.2 미국 | 5.1 결론 |
| 3.3 일본 | 5.2 제언 |

초 록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도서 보관(Container)기능에서 정보 접점(Connector) 기능을 요구하며, 정보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기능과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내의 환경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였으며 주5일제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서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주5일제, 고령화, 인적자원개발 등 평생학습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불가분의 역학관계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21st century is a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Keeping pace with this global environment change, people demand various roles from a library. First, they demand to play a role of an "Information Connector" rather than a traditional role of a "Book Container". Second, they demand to be the place of the social integration for a solution to the information and learning gap and the place for a life-long learning for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by the community unit. In addition, not only introducing a system of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 HRD" for national HRD and "Five-Day Week" but the advent of "an Aging Society" demand a change of a library. This study researches roles of a library inseparably related to such new paradigms i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s the knowledge, information, five-day week, aging and HRD, and shows the right direction of a library to pursue in the future.

키워드: 지역사회, 평생교육, 평생학습, 도서관

Community,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Library

*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wns1136@moe.go.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6일

1. 서론

최근 한국의 평생교육 기조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적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놓여지고 있다. 이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이념적 기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을 위한 생애 학습 기획의 확충과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전 생애적 평생교육 정책 수립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로 개편하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동하여 평생교육정책 마스터플랜으로서 '평생학습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 법제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 지원체제 정비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들은 UNESCO와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평생교육정책 동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UNESCO와 OECD는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정립과 실천을 주도하는 양대 국제기구이다.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은 '존재를 위한 학습'으로써 알기 쉬운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학습을 기동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학습사회론에 근거한다. OECD는 일과 학습의 연계모델로서 평생에 걸친 교육시기의 재분배 모델인 순환교육모델을 학습경제론적 관점에서 제기함으로써 인적자본

과 사회적 자분을 근간으로 삼는 평생교육 투자 확대 전략화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OECD는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을 기치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연계모델을 창안함으로써 학습경제론과 학습사회론의 통합적 관점의 평생교육 전략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도서관은 자료저장소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활동의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문, 국제도서관연맹(IFLA)과 UNESCO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OECD 교육위원회의 정책보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관은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은 이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주5일제를¹⁾ 맞이하여 유희한 시설을 활용하여 더 이상 학교만의 시설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를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 안에 존재하는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활동과 지역사회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서관으로써 다른 관중에 비해 풍부한 전문정보 자원과 훌륭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책만 읽는

1) 주5일제는 주5일제 수업과 근무를 모두 포함한다.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화, 주5일제, 고령화라는 평생학습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시대적·국가적 요구와 불가분의 역학관계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주민

현대는 지역사회의 시대 또는 커뮤니티의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라는 말은 공동운명체를 뜻하는 말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성,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느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부단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동체 의식, 즉 '우리' 의식의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인간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멀도크(G. P. Merdock 1950)는 지역사회를 보통 함께 거주하는 최대한의 인간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매키버(R. M. Maciver)와 페이지(C. Page)는 지리적 영역을 기초로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역사회 개념을 신개척지, 부락, 도시 혹은 국가와 같은 다양한 단위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멀도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확대시키면서 국가나 지방처럼 크지는 않는 지역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힐러리(G. A. Hillery 1955)는 1950년대까지의 영미 사회학자들의 지역사회(Community)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94개의 논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학자들의 Community란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한 가지 공통 요소는 인간집단을 다룬다는 점이며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를 내포한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사회학자 샌더스(L. T. Sanders 1959)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수성을 지적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특정지역에 대한 소속감, 자원의 특성, 봉사기간을 통한 지역사회 의식의 생성, 사회적 관계의 조직체, 지역적·사회적 특징에 따른 지도력의 복합성, 향토애, 지역문제 해결 경험의 공유, 공동가치체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쿡(Lloyd Allen Cook 1950)은 지역사회가 공동생활(Life-sharing)의 환경(Setting)이며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인구의 집합체, 제한되고 인접된 지역 내에서의 거주, 역사적 유산의 공존, 기본적 봉사기관의 소유, 공동생활양식에의 참여, 통일성의 의식, 협동생활의 가능성 등 7가지의 개념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지역사회의 기본요소로서 한정된 지리적 영역,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 이들에게 봉사하는 기관, 위기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합된 행동방식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지역사회란 다

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지리적 공동),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활에 도움을 주며(생활의 공동), 같은 전통, 관습 및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문화의 공유)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역사회주민은 일정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거인을 말한다. 이러한 주거인은 일정한 영역 내에서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통하여 공동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다른 지역사회와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만의 동질감을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Community)는 지역공동체(Human Community)라고도 풀이하는데, 이 말은 인구생태학 등과 같이 생물학적 용어에서 나온 말이다. 그 기본 뜻은 생물의 어떤 종이 지역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한곳에 모여 생활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행태학에서도 인간 삶의 지역성·공간성을 띤 측면에서 다룰 때 지역사회주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2.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은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생애에 걸쳐 행해지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일 것은 물론이고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교육에 대한 원초적 개념이며 교육의 공급 측면이 강조된다.

인간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요구이다. 더욱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평생교육·평생학습은 생존권 차원의 시대적 정신이어야 한다. 평생 동안 받는 그 모든 교육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학교중심의 현대교육은 국민교육에 최대의 목표를 두어 왔으므로 교육에서의 주체는 당연히 교사, 학교, 국가 또는 사회 등 교육 실시자라는 교육 공급자 측면의 교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계속 된다면 평생교육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타율에 의한 교육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개념은 교육의 수요측면으로서 종전의 교육 공급자(교육자) 중심이 아닌 교육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의미한다. 즉 평생학습이란 국민의 자질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형태의 수요자 중심의 학습활동이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은 개개인이 학습자가 되며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한다.

평생학습은 그동안 다분히 낭만적, 유토피아적 이념에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현실로 이행되어져 왔다. 즉 사변적 논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가르쳐주는 공급자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인 평생학습으로 변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모든 교육의 조직 원리 내지 상위 개념에서 시스템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패러다임도 평생학습의 개념이 주창되었던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5·31교육개혁의 배경으로 자리했던 지식·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는 더

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평생학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ESCO, OECD,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지식경제의 발전전략으로 평생학습을 채택하고 있다.

인간은 교육에 대한 수동적 대상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관한 이론은 개개인이 주체적 학습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렇듯 평생학습론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생에 걸쳐서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교육자 본위의 기존 교육관을 비판하고 학습자 본위의 새로운 교육관을 추구하는 대안적 이론이다.

3. 평생학습사회와 도서관의 관계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

UNESCO 공공도서관 선언문, IFLA/UNESCO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OECD 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보고서,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평생교육법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업무) 등 각종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도서관의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는 해방 이전 개화기 때부터 강조되어 왔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평생학습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도서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개인적·사회적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료나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이들 자료를 이용자에게 단순히 전달해 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개방화, 국제화, 주5일제, 고령화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지식정보 공급원으로서의 역할과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 등 다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3.1 영국

영국 정부는 학습시장으로서의 학습사회 건설 못지않게 영국의 발전된 정보공학을 바탕으로 네트워킹 학습사회 건설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일찍부터 정보공학을 교육에 응용해 온 대표적인 나라답게 평생학습의 정보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학습사회의 실현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원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여 학습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다양한 학습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되어야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의 기반도 형성되고 그를 기초로 하

여 네트워크 학습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학과 평생학습을 접목시켜 네트워크 학습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비전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학습망이다. 영국정부는 1998년부터 교육수준 향상과 평생학습 지원을 목표로 국가 학습망(National Grid for Learning : NGfL)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학습망 사업은 교육컨텐츠 모으기 운동으로 불려도 좋을 정도로 교육정보자료를 모아서 제공해 주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컴퓨터 통신망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평생학습이 실현되려면 망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 못지않게 다양한 학습자들의 학습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컨텐츠가 수집·제공되어야 함을 지각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즉 국가학습망 사업은 기반구축과 컨텐츠 모으기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먼저 국가학습망은 교육 컨텐츠를 총 망라해서 제공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 메뉴를 초·중등교육, 계속교육, 일반대학교육, 평생학습, 직업개발, 도서관, 박물관과 화랑, 지역망, 국제망, 정부 및 출연기관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학습망 사업은 모든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사회센터를 국가학습망(National Grid for Learning : NGfL) 즉,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학습망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은 누구나 쉽게 평생교육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는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제공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학습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

한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받는 도서관을 비롯하여 박물관, 미술관, 대학, 연구소, 공영방송 등으로 하여금 NGfL에 정보를 탑재하도록 하고 그 탑재현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양질의 평생학습 온라인 자료 확보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3.2 미국

미국의 평생교육은 남북전쟁 말기에서 공화체제 수립 초기에 걸쳐 사립대학의 시민교육 및 직업소양 함양교육에서 출발하였다. 1862년 모릴법(Morrill Act)에 의거하여 국토를 무상으로 불하받은 주립대학들이 1914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의무화하는 스미스 레버법(Smith Lever Act) 제정에 따라 교외강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사업 발의로 간주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예산 전액 또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여 기초 환경 조성의 촉매역할을 한다.

미국의 평생교육은 클링턴 정부의 국가 정보화 정책의 실행전략으로 인식되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국가 정보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클링턴 정부는 산업인력 정보화를 위해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켰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평생교육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므로 문화충돌과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재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역할 및 수요

는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국가 및 지역의 정보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평생교육에 예산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연방정부는 정보화활성화를 위한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육용 통신요금을 할인하여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컨소시엄 포함) 등 평생교육기관이 국민의 정보화교육 전초기지로서 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미국에서 평생학습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영역이 바로 공공도서관이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교양서적 및 예술, 그 외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갖추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성인교육분과를 설치하고 수요조사 및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등 평생교육 발전에 적극적이다. 또 미연방의 정보화정책의 일환인 교육용 통신료 할인으로 전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에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접속할 수 있도록 자료전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3 일본

일본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에

서 평생학습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평생학습체제가 정비되는 동안 국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의 생애학습시책은 종래의 복지 지향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공민관·도서관·박물관 등 기관 중심의 학습제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사설문화센터들이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주적 학습 집단의 활동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은 공민관이다. 1949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에 의해 제도화된 공민관은 2003년 현재 전국에 18,816개의 공민관이 설립되어 있다. 공민관의 형태는 다양하여 전문직 직원이 상주하면서 많은 학습이나 강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지만, 이와 달리 직원 배치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곳도 있다. 공민관 외에 평생교육시설로는 박물관,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 교육시설 등이 있다.

문부과학성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평생학습시설 네트워크 사업이다. 평생학습시설 네트워크 사업의 취지는 사람들의 다양화·고도화되는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시설, 학교, 직업훈련시설, 복지시설 등

<표 1> 2003년도 일본 평생학습기관 및 강좌실태(이영호 2004)

구분	시설 수	직원 수	학습강좌 수	프로그램건 수	이용자 수(천명)
공민관	18,186	57,896	354,108	159,378	222,675
도서관	2,744	27,280		60,726	143,103
박물관	5,360	43,012		40,154	269,324
청소년교육시설	1,307	8,138	15,392	9,744	20,796
여성교육시설	199	1,107	7,192	2,093	3,356
체육시설	60,911	329,036		753,120	597,202
문화회관	1,832	18,198	54,880	105,059	

과 같은 학습시설과 우체국이나 역, 쇼핑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민간시설을 상호 연계하면서 평생학습기반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가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 네트워크, 인재 네트워크, 네트워크 추진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설 상호간의 연계이다.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직업훈련원, 복지시설이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상호 거점시설과의 연계이다.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 등의 시설이 우체국과 역, 쇼핑센터 등의 민간 시설과 협력해 나가면서 문화사업과 정보제공, 도서대출 서비스를 수행한다. 셋째, 학교와의 연계이다. 공민관과 공동개최로 대학 등이 지역주민이 수강하기 쉽도록 지역사회에서 출장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학교의 교정, 체육관, 수영장, 도서실, 특별교실 등의 시설과 인력을 지역사회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넷째, 기업과의 연계이다. 기업이 주최하는 지역사회 학습에 강사 파견, 기업 종사원의 봉사활동 장려, 지역에 기업의 각종 시설 개방 추진 등이 있다. 다섯째, 합동 이벤트의 개최이다. 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박물관, 도서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순회전과 시설 상호간에 자료를 활용하는 종합기획전을 실시한다. 여섯째, 순회서비스의 제공이다. 공민관과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회문고용 자동차를 배치한다.

일곱째, 신체장애자와 고령자의 활동지원이다. 신체장애자와 고령자의 시설이용 촉진을 위해 사회교육시설과 학교, 복지시설 등이 협력하여 대형 활자본, 확대 독서기, 녹음테이프, 점자도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덟째, 시설 봉사사업의 추진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활동 등에 협력할 수 있는 봉사 요원을 양성·파견한다. 아홉째, 시설의 복합화 전략을 추진한다. 각기 다른 설치 목적과 기능을 가진 복수의 주민서비스용 시설을 동일 건물 또는 동일단지 내에 설치하여 건축물로서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결합된 각각의 시설 서비스 기능을 높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시설의 고기능화, 고성능화를 도모한다. 시설의 복합화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합된 시설의 독립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자세이다. 공민관과 도서관의 복합화를 추진하되 각 기관의 관장을 따로 두고 업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기능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4 한국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사회교육 개념에서 출발하여 평생교육으로, 그리고 평생교육 개념에서 평생학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2002년 '평생학습진흥 5개년

〈표 2〉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학습 참여율(OECD 2002)

한국	OECD평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호주
17.2	35.6	56.8	55.7	52.5	43.9	39.7	38.8

(%)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패러다임이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평생학습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성인참여율은 17.2%로 OECD주요국의 평균 참여율 35.6%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에 투자한 예산은 0.04%(22조 307억원 : 99억원, 04년도 일반회계 기준)로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학력별로 많은 평생학습의 기회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는 국민의 학습력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축적이 정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문제시 되는 것은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있어 학력간, 계층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표 3>과 같이 초졸 이하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0%, 중졸 9.1%, 고졸 18.7%, 대졸 이상 42.6%로 학력간 평생학습 참여율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초졸 이하는 대졸 이상과의 차이가 8배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연령, 성별, 학력,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축의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 평생교육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센터와 시·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군·구 수준의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29일 중앙의 평생교육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되어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수준에서는 <표 4>와 같이 2000년 7월 13일 16개 시·도에 23개 기관(컨소시엄 포함)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었고, 2002년 1월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반영하여 2002년 1월부터 5년간 26개 기관(컨소시엄 포함)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선정·지정하였다. 2차 선정 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11개 기관(42.3%), 대학교 및 전문대학이 11개 기관(42.3%), 연구원이 1개 기관(3.9%), 문화회관이 3개 기관(11.5%)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위해 교육감이 설립한 기구이다. 시·군·구·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평생학습관은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연수 및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2004년 10

<표 3> 한국 평생학습 참여율(통계청 2004)

구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여율	41.8	47.2	66.3	78.0
평생학습 참여율	5.0	9.1	18.7	42.6

(%)

<표 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4)

지역	1차 지정기관(2000~2001)	2차 지정기관(2002~2006)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부산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대학교
대구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인천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하대학교
대전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 대덕대학	대전대학교
광주	금호교육문화회관, 조선대학교	금호교육문화회관, 조선대학교
울산	울산남부도서관, 울산대학교	울산남부도서관
강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춘천평생교육정보관
경기	수원대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충북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남	천안대, 천안외대, 충남학생회관, 공주대	천안대, 천안외대, 충남학생회관, 공주대
전북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신대학교, 담양공공도서관
경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대구대학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대구대학교
경남	경상남도교원연수원	창원도서관, 거제평생교육원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계	23개 기관(컨소시엄 포함)	26개 기관(컨소시엄 포함)

월 현재 전국의 시·군·구에 270개의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5>와 같이 평생학습관 지정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원)이 172개 기관(63.7%)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화회관이 16개 기관(5.9%), 사회복지관이 15개 기관(5.6%), 대학이 14개 기관(5.2%) 순으로 나타났다.

4.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4.1 공공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공공기관이다. UNESCO 공공도서관 선언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표 5> 평생학습관 명칭별 지정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4)

기관명	기관수	백분율(%)	기관명	기관수	백분율(%)
평생학습관(원)	17	6.3	연수원·수련원	5	1.9
도서관	155	57.4	지역사회교육협의회	8	3.0
문화원, 문화회관	16	5.9	박물관	1	0.4
학생회관	7	2.6	사회복지관	15	5.5
대학	14	5.2	연구원	1	0.4
초·중·고등학교	9	3.3	기타	22	8.1
계				270	100.0

에 의해서 설립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기타 지역사회 조직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정보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인종, 국적, 연령, 성별, 종교, 언어, 신체장애, 경제력, 취업상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도서관연맹(IFLA)과 UNESCO에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임무를 ① 어린시절부터 아동의 독서습관 육성 및 강화 ② 모든 수준별 공식교육과 독자적 학습지원 ③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조력 자극 ⑤ 문화유산, 미술 감상, 학문적 업적과 혁신에 대한 인지 증진 ⑥ 모든 공연예술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 제공 ⑦ 문화 간 교류 조장 및 문화적 다양성 수락 ⑧ 구술 전승 지원 ⑨ 모든 종류의 지역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 제공 ⑩ 지역의 기업, 단체, 이익집단에 적절한 정보 서비스 제공 ⑪ 정보 컴퓨터 사용능력 개발 촉진 ⑫ 모든 연령층을 위한 문맹퇴치 활동과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 그리고 필요시 이러한 활동 착수라는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업무)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제5호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강연회·감상회·

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라고 규정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004년 말 우리나라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487개관이다. 1991년 이전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서관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총장서 수는 38,423,789책으로 도서관 당 장서 수는 78,899책이고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0.79책이다. 도서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1.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도서관은 계속 확충되고 있는 데 반해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총 정원제로 인해 사서직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서관 당 사서 수는 4.5명에 불과하여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22,296명으로 국제도서관연맹(IFLA) 권장기준(사서 1인당 2,500명)의 11.2%에 불과한 상태이다.

최근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도서관의 평생교육적 기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도서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도서관은 <표 4>와 같이 서울시의 마포평생학습관, 부산시의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대구시의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표 6> 공공도서관 설치 현황(한국도서관협회 2005)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	계
250	223	14	487

북구도서관, 광주시의 금호교육문화회관, 울산시의 울산남부도서관, 강원도의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충청북도의 충북중앙도서관, 충청남도의 충남학생회관, 전라남도의 담양공공도서관, 경상남도의 창원도서관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은 <표 5>와 같이 전체 270개의 평생학습관 중 155개 기관으로 57.4%에 이른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표 7>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는 달리 문화적 기능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은 자료이용 중심의 정보서비스 기능이 주를 차지하는 데 비해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수집·보존하며, 그 이용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용자인 주민 개개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교육기능과 문화기능을 가지는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가장 먼저 꼽는다. 지금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활동의 장에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면 첫째,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주민)의 중심이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에 있어서 지리적·입지적 중심은 물론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문화를 수집하여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전승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표 7>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유형(김홍열 2004)

구분	프로그램 내용	
사회교육프로그램	어학정보프로그램	외국어, 한문, 컴퓨터, 정보 등
	예술교양프로그램	바이올린, 피아노, 노래지도, 수채화, 동양화, 민화, 점토, 사진, 문학강좌 등
	건강취미분야	탁구, 에어로빅, 건강기공, 체조, 요가, 댄스 종이접기, 공예, 꽃꽂이, 피부관리, 수지침 등
	지역사회기반 전통프로그램	판소리, 국악, 향토연구, 민요, 무용 등
독서교육프로그램	독서교실, 독서회 운영, 자녀독서지도, 독서캠프, 구연동화교실, 이야기교실, 글짓기교실, 논술, 신문활용수업 등	
도서관이용교육프로그램	도서관견학, 도서관 이용지도	
도서관행사프로그램	도서관(독서)주간 행사, 강연회, 전시회, 전람회, 각종공연, 영화상영, 연주회, 문학담방, 사전답사 등	

둘째, 정보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종이 매체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인쇄매체는 정보전달 매체의 핵심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다른 종류의 다양한 정보전달 전자매체가 등장하였다. 전자매체는 단순히 기록된 지식을 저장하는 매체라는 의미보다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전달매체의 변화에 발맞추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하고 정보접근에 관한 기회를 확대하는 정보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이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너무 양적으로 치우쳐 도서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기능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청소년을 공공도서관으로 유도·흡수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주부, 초등학교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에서는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부와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의 역할로 맡기는 등 지역 내 도서관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도서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지역주민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에서 일할사람과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4.2 학교도서관의 역할

학교 평생교육에 있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시설의 개방이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의 제①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5조 제②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개설하면 여기에 대한 학교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설치 율이나 장서, 인력 면에서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은 2004년 말 현재 9,649개관으로 전체 학교 수 대비 90.6%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4조에서는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편은 아니라 하겠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교실 1칸 정도의 작은 규모이고 운영형태도 학생들의 자습실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수준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학교도서관 1관당 장서 수는 5,173 권이고,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7.07권으로 선진국의 10~20%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장서의 내용이 대부분 단행본, 전집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서의 질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한 “주5일제 근무제 대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이희수 2002) 교육정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이 30~40대의 여성 고학력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의 과반수이상이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위주의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학습자들이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접근의 용이성과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아서 학교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학교시설의 유휴공간 외에 학교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관 등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 교육위원회는 학교도서관 정책보고서에서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학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서도 “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87) 연구보고서에서는 “학교도서관은 종합교육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과 신속한 정보자료 제공 기능, 교수학습 활동 전개에 따른 정보자료 및 매체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도·조언과 지원기

<표 8> 학교도서관 현황(한국도서관협회 2005)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도서관 수(%)	장서 수	학교도서관당 장서 수	학생1인당 장서 수
초등학교	5,541	4,175,626	4,779(86.2)	28,638,748	5,169	6.86
중 학교	2,888	1,854,641	2,652(91.8)	13,159,248	4,557	7.10
고등학교	2,221	1,766,529	2,218(99.9)	13,297,246	5,987	7.53
계	10,650	7,796,796	9,649(90.6)	55,092,242	5,173	7.07

능, 독서교육을 통한 정서순화와 여가선용 지도 기능,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정보자료 봉사 기능 등 다원적인 정보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학교만의 자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9,649개교로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수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지리적인 면에서도 “집 근처에는 없고 산 꼭대기에만 있다.”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사회의 중심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주민들이 접근을 꺼려할 정도로 시설과 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사서교사 부족 등 관리적인 이유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신문에서는 2006년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도서관을 살리자”라는 3회 연속 탐사보도를 게재하였다. 이 탐사보도 이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의견이 “은행 지점처럼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짧은 기간에 공공도서관을 은행지점처럼 많이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전국의 1만 여개의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여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은행지점처럼 많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도서관은 그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시설이나 장서의 문제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둘째, 주5일제에 대비하여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이 30~40대의 여성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통계로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고학력의 여성들이 대부분 전업주부임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전업주부들에게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학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와 교사 상호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학교와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학교 시설을 복합화하고 인텔리전트화하여야 한다. 주5일제 수업과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과대학급 출현 등으로 인한 학교 시설의 불균형을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을 정보화하고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으로 재구조화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자기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도서관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각급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서교사 배치문제를 법적인 잣대로 적용·배치하여 기존의 우수한 교사와 더불어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양적인 면이나 지리적인 면, 그리고 인적자원 등 훌륭한 인프라와 우리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학부모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4.3 대학도서관의 역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로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술자료와 디지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링크, 다운로드, 정리, 보존, 축적, 연구·학습활동에 원활한 지원, 다른 도서관과 정보망을 통한 학술자료의 제공,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자료와 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등의 기능수행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만든 한국도서관기준에서 대학도서관 제1장(사명과 목적)과 제6장(이용자 봉사)에서 "대학도서관은 자료와 시설을 학내 이용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보입수, 독서활동, 평생교육, 여가활동 등에 기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수는 총 438개관으로 국·공립대학이 61개관, 사립대학이 200개관, 전문대학도서관이 157개관, 기

타 20개관이 차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다른 관중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지만, 연평균 자료구입비가 선진국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첨단매체나 학술잡지의 수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직원 수는 3,791명으로 1관당 8.7명이며 다른 관중에 비해 사서직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학은 그 형성과 발전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지역사회 안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대학의 주인은 지역사회주민이며, 대학의 기능 또한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장으로서 시설을 개방함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의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사회적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학술연구를 통한 전문적 정보를 생산하고 다양한 문화와 훌륭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가중되고 있는 지방화의 추세 속에서 대학은 소속한 지역의 한 구성요소로서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이 지닌 모든 자원인 정보, 시설, 서비스 등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개방화 흐름은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은 다른 관중의 도서관에 비해 풍부한 전문정보 자원과 훌륭한 시설 및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도시로부터 떨어진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은 그 지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지역

〈표 9〉 대학도서관 현황(한국도서관협회 2005)

도서관 수(개방)	장서 수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사서 수
438(90)	94,464,376	423,285	8,313,885	3,791

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대학도서관들이 지역사회의 개방요구를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개방현황은 〈표 9〉와 같이 438개의 도서관 중 90개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자료와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도서관계 자발적으로 정보공유와 정보접근권 운동의 차원에서 올리브(Open Library : OLIB)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대학도서관의 본원적 기능을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주민을 위하여 시설과 자료를 개방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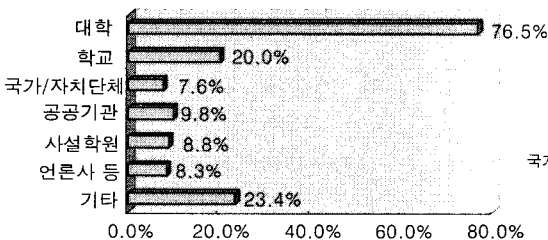
- 일정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 도서관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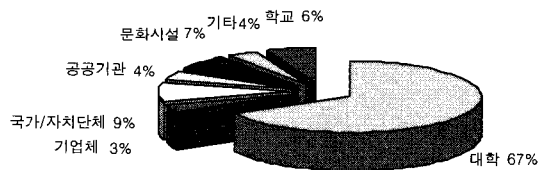
-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장애인 도서관 이용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999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강경험이 있는 평생학습기관을 조사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대학이 76.5%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향후 수강하고 싶어 하는 평생학습기관도 〈그림 2〉처럼 대학이 67%로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사회주민들이 대학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는 달리 풍부한 전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통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그림 1〉 수강한 평생교육기관의 비율



〈그림 2〉 수강하고 싶은 평생교육기관 비율

들에게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특히 단순히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료를 특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예로, 지역 내 희귀자료의 수서를 통한 지역자료실의 구축, 창업지원 자료만을 모은 창업지원 자료실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지역 내 산업체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에서 배우는 새로운 이론을 기업에 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고가로 구입하는 전문적인 학술정보원인 Web DB와 전자저널의 원문서비스를 지역 내의 산업체에 제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반열람실, 시청각실, 회의실 등의 시설물도 지역사회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영화상영, 음악 감상 등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 내 도서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하여 서로간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간접적인 장서확충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자료뿐만 아니라 인력, 시설 및 참고서비스의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처럼 상호대차, 분담수서 확대 등을 활성화하여 자료의 상호 이용을 현실화하여야 하고, 특히 대학도서관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하

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검색 및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도서관 이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매학기 또는 주기적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인적·물적자원의 투자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서울신문은 “도서관을 살리자”라는 탐사보도를 통해 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서재로 활용하고, 도서관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설계하여 문화·예술은 물론 직업정보센터의 역할까지 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 도서관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도서관이 평생학습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① 맥도널드보다 공공도서관이 더 많다.
- ② 도서관에서 매일 다루는 자료가 페덱스(Fedex)의 하루 물류량 보다 많다.(도서관: 540만권, 페덱스: 530만 건)

- ③ 공공도서관의 회원은 아마존 회원의 5배 정도이다.
- ④ 미국인들이 도서관에 가는 횟수는 극장에 가는 횟수의 두 배가 넘는다.
- ⑤ 미국인들은 스낵바에서 보내는 시간의 세배 이상을 도서관에서 보낸다.
- ⑥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은 160억 권 정도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 ⑦ 한해에 판매되는 스포츠 티켓은 2억 400만장이지만, 도서관은 매년 11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찾는다.
- ⑧ 1년 동안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는 15억 차례 이상 이용된다.
- ⑨ 미국인들은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의 일곱 배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데 보낸다.
- ⑩ 대학의 사서들은 매년 9,700만 건의 참고 질의에 답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 간간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눈에 띄지만, 정작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시험 준비에 열중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제는 우리 도서관도 고객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지역사회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지식·정보화, 주5일제, 고령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고객인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교육적인 기능과 문화적인 기능을 가지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역, 쇼핑센터, 우체국, 은행 등 민간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정보제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은 1만 여개의 많은 수의 도서관과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사회의 중심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을 정보화하고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주5일제를 맞이하여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와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를 확충하여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풍부한 전문정보 자원과 훌륭한 시설 및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은 지역정보를 특화하는 등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내 산업체들과 유기적인 협

조체제를 유지하여 고가로 구입하는 Web DB와 전자저널 등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 내 도서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료뿐 아니라 시설, 인력, 참고서비스의 공유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여야 한다.

5.2 제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첫째, 도서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06년 1월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 수를 모두 750개까지 늘리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보다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주민들이 도서관을 집 앞 슈퍼마켓 드나들 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도 매우 열악하지만 지리적인 입지조건도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생활이고 문화이어야 하는 데 접근성이 없는 도서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지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주민이 접근하기 좋은 역이나 쇼핑센터, 우체

국, 은행 등과 같은 건물에 공공도서관이 입주하는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도서관이 주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 지정 방식을 '기관 설립' 형식을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목적을 가진 도서관이나 대학 평생교육원과 같은 기관에 '기구 지정' 형식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공공도서관에 지정된 경우가 많아 도서관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도서관의 평생학습관화의 가능성 때문에 도서관 관계자들의 저항과 함께 도서관 본래의 기능에 평생학습관이나 정보센터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사서들의 업무증대에 따른 불평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복합화를 추진하되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투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더디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 및 효과의 산출도 매우 어렵다. 또한 도서관은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비해 사서직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학교도서관도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초·중등학교 및 대학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4. 『평생교육백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2.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OECD교육정책분석 : 평생학습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생애에 걸친 학습 체제의 구축』. 서울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통계청. 2004.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대전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 1987. 『도서관체제 확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도서관협회. 2005.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곽동철. 2005.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6(2): 71-84.
- 곽철완. 2004. 미래의 공공도서관을 위한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74-78.
- 김남선. 2003. 『지역사회교육론』. 서울 : 형설출판사.
- 김민호. 2002.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 평생학습문화 형성방안 『평생교육학연구』, 8(1): 27.
-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2-3.
- 방명숙. 1998. 『98국내외 교육정보화 정책 동향 분석』.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심효정. 2003.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도서관』, 58(3): 3-28.
- 심효정, 이용훈. 2003.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공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157-160.
- 안상헌. 2005. 한국 평생학습사회의 이념적 지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1(1): 77.
- 양정은. 2005.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정보과학대학원.
- 오현석. 2004. 『평생학습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유소영. 1996. 평생학습사회의 기반구축과 학교도서관매체센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129.
- 윤희윤. 2002.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의 함수관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0(1): 73-74.
- 이무근. 2001.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발전모델 비교분석』.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이소연. 200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38(3): 26.

- 이양교 2002. 『평생교육 정책론』. 서울 : 학문사.
- 이영호 200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서울 : 원미사.
- 이희수 2002. 『주5일 근무제 대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2000.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외 2002.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장혜란, 이미영 2004.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조사 수행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 15(2).
- 정병진 200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2(4).
- 정진환 2005. 한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모색. 『교육행정학연구』, 23(3): 554-567.
- 진창남 2002.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미경 2002.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역사회 기반 봉사확대를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13(1): 200-201.
- 최상호 2004.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 서울 : 박영사.
- 최운실 1999.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 및 행정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한승희 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 학지사.
- 津田英二 2004. 『2003년 사회교육실태 조사』. 동경 : 文部科學省.
- Gill, Philip.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Cook, Lloyd Allen. 1950. *A Soci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 McGraw-Hill.
- Cropley, A. J. 1977. *Lifelong Education : A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 pergamon press.
- Field, J. 2002. *Lifelong Learning and the new education order*. Sterling : Trentham Books.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 Knapper, C., Cropley, A. 2000.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London : Kogan Page.
- Merdock, G. P. 1950. *Outline of Cultural Material's*. New York : Yale University Press.
- OECD. 2002. *Education at a Glance*. OECD.
- Olsen, Edward G. 1961. *School and Communit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 Piternick, Anne B. 1979. “Problem of Resource Sharing with the Community : a Case Study.”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5(3): 153-158.
- Sanders, Irwin T. 1967. *Making Communities Better*. University of Kenterky Press.
- Sarling, Jo Haight., Debra S. Van Tassel. 1999. “Community Analysis : Research That

- Matters to a North-central Denver Communi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1): 7-19.
- The World Bank, 2003, *Lifelong Learning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ic Report*. The World Bank.
- Wilcox, Johnson Debra, 1999. *Cultural Programs for Adults in Public Library : A Survey Report*. Chicago : ALA.
<<http://www.ngfl.gov.uk/ngfl>>
<<http://www.ala.org>>
서울신문. 2006년 1월 18일~25일